

## 柔軟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 : 현대 産業社會의 새로운 패러다임 ?

李 德 安\*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대량생산체제에서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제로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사회과학계를 풍미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柔軟化論者들의 주장을 개관하고 그 문제점을 살피는 데 있다. 유연적 전문화 논의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관념적이고,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학자들 간에 용어사용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혼란의 와중에 있다.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移行은 二分論的인 설명방식의 사용으로 과장된 측면이 많은데, 실체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와 국토공간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그들의 중층적 하청조직에 의해 그 골격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柔軟化論의 한국에의 적용은 많은 注意를 요한다. 현재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용어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를 통일하는 일이다.

**主要語 :** 柔軟的 專門化, 産業地區, 포스트 포디즘, 下請

### 1. 머 리 말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80년대 초반 이후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축적체제가 '포디즘'(Fordism)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탈피하여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인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 또는 '유연적 전문화'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sup> 즉,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다양해지고 극소전자기술(자동화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제품생산양식이 대량생산방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 바뀌고, 노동자의 多技能化 및 自律性이 확대되며, 전문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기업간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산업의 지리적 (재)집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보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Schmitz, 1990).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연적 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어가

는 추세이나 지리학 분야의 경우는 극히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고태경, 1992).

포디즘 이후의 축적체제는 이론적 기반을 달리 하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유연적 전문화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2)</sup> 이는 유연화론이 특히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의 논의와 관련하여 지리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주목되는 점은 유연화론이 활기를 띠면서부터 소규모 기업을 보는 학자들의 시각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연적 축적체제 내에서 소기업은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의 주변부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규모 기업의 성장과 '산업지구'의 발달이 자본주의 경제의 호황기가 아니라 위기의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Rasmussen et al., 1992). 필자가 유연화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소위 이러한 새로운 생산체제로의 이행이 소수의 대규모 기업집단(財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한국의 산업구

\* 서울대학교 사회대 지리학과 강사

조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현대 산업사회가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제의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제 사회과학 연구의 커다란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자체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할 정도이다. 유연적 전문화의 論議對象은 초기에는 제한적이었으나 이후에 급속히 확대되어 '모든 것'에 대한 유연화를 그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80년대 후반들어 이에 대한 반론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포디즘/포스트포디즘(유연적 전문화) 논의는 가속적으로 혼미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연구자들에 따라 용어의 개념(의미)과 적용대상 및 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유연적 전문화론의 유용성에 대해 명확한 시비를 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유연화론에 대한 제 논의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꺾덕이 아이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Amin and Robins, 1990).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 글에서 다음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유연적 전문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 개념혼동의 문제점, 그리고 제품다양화(niche market) 전략의 허구성을 개관한다. 둘째, 유연성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이다. 이 장에서는 용어적용의 광범위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연화론의 핵심 내용인 유연적 기계장치, 생산조직의 유연화, 그리고 노동과정의 유연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셋째,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이행이 사회전체 또는 산업공간의 재구조화(산업입지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특히 여기서는 '산업지구'의 개념과 유연적 생산체제 모델의 한국에의 적용에 대해 살펴본다.

## 2. 유연적 전문화의 개념에 관한 제 논의

### 1) 용어의 탄생 배경

새로운 용어는 어떤 새로운 현상을 지칭하거나 이를 기존의 다른 현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모든 사회현상은 그 나름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의미는 역사적인 맥락(historical context)에서 규정되어진다. 유연적 전문화의 논의에 불을 붙인 Sabel(1982)에 의하면 유연적 전문화는 匠人的 숙련노동력(craft labor)과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적인 소규모 기업, 이들 전문화된 소기업간의 긴밀한 연계구조의 형성과 이것이 결과한 소기업의 지리적 집적(agglomeration), 직무순환과 직무확대를 통한 노동과정의 유연성 증대, 그리고 소비취향의 다양화에 대처한 다품종 소량생산을 그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의미한다.<sup>4)</sup> 이러한 이론적 발전의 경험적 근거는 'Third Italy'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Emilia-Romagna 지방의 엔지니어링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Sabel(1982)의 조사에 두고 있다.<sup>5)</sup>

Sabel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탈리아의 대기업들은 강력한 노동조합과 경직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 때문에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과 다양화되어 가는 소비취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대기업의 상대적 경직성은 niche market의 확대를 결과하고 소기업은 보다 풍부한 사업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하청거래의 확대를 통한 대기업의 生産分化는 소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시장확보를 가능케 한다. 일부 숙련기술자들은 보다 높은 보수를 위해 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다. 소기업은 처음에는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신 기술의 도입과 전문화 그리고 노동실행의 유연화를 통해 세계시장상대로 주문생산을 하게 되면서 점차 독립되어 간다. 소기업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의 대기업 시장을 계속적으로 찬탈해 가며, 전문화에 따른

## 柔軟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

기능적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특정 지역에 집적하여 '산업지구'를 형성한다.

한편 Murray(1987)는 Sabel(1982)이 조사했던 Emilia-Romagna의 首都地域인 Bologna 지방을 再調査한 결과 Sabel의 조사방법과 주장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선별된 회사들은 한결같이 고도로 특화되고(highly specialized), 배취생산(short batch)과 주문생산(customized)을 위주로 하며 投資財의 製品을 생산하는 업체들이었다. 이들 기업의 생산방식은 원래 포드주의적 생산기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회사가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서 포스트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으로 이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Sabel은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산업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에 적합한 엔지니어링산업만을, 그것도 가장 진취적인(progressive) 기업만을 선별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지역전체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뒷따른다. 셋째, Bologna 지방의 엔지니어링 대기업은 1970년대 후반에 새로운 생산기술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匠人的 엔지니어링기업(artisan engineering firms)에 대해 하청생산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들 대기업은 다시 다국적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그들의 시장지분을 확보해 왔다. 따라서 유연화체제의 특징으로 말해지고 있는 시장의 세분화(소기업에 의한 대기업 시장의 代替) 및 소기업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Sabel은 숙련기능직에 종사하는 Bologna 지방의 중년 남성노동자만을 조사하고 다른 엔지니어링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및 이민 노동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종업원들의 노동실태는 장미빛이기 보다는 비극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소기업(종업원 16인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Emilia 경제는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제'로 명명되기 곤란한데 그 이유는 이 지방의 기업들이(이전부터) 전혀 포드주의적이 아니

었거나 그들이 아직도 포드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Sabel의 조사방법 및 해석상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유연적 전문화'라는 용어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유연적 전문화 개념을 적용한 그의 최초의 논문(Sabel, 1982)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연적 전문화는 다음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유연생산시스템하의 중소기업은 독립적(자립적)이고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갖는다(종속적이지 않다). 둘째, 제품생산기술이 매우 전문화되어 있으며 다른 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설계와 생산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셋째, 전문화된 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존 시장을 점차적으로 대체해 가며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게 된다.<sup>6)</sup> 넷째,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유연적 생산체제가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유연적 생산체제라는 용어는 대기업에의 종속성이 강하고, 대기업의 대량생산을 뒷받침하며, 기술적 숙련도가 낮고, 단순 임가공 및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대표되는 하청생산시스템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 2) 개념상의 혼동

유연적 전문화는 Sabel(1982)에 의해 그 개념적 기초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자신은 물론 사고체계를 달리하는 다른 분파의 이론가들에 의해 용어의 적용범위가 극도로 확대되어 본래의 의미가 크게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 소기업과 대기업, 첨단산업과 노동집약산업, 기업내 유연성과 기업간 유연성, 노동실행의 기능적 유연성과 수적(양적)인 유연성 등 모든 것에 대한 유연성으로 그 의미가 바뀐 것이다. 애당초 유연적 전문화는 종속적이고 경직적이며 낙후된 생산방식인 下請生産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하청 자체가 유연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둔갑해 버린 데서 개념상 혼동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포디즘과 유연적 전문화(포스트 포디즘)

의 개념과 적용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보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포스트 포디즘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포디즘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포스트 포디즘을 개념정의하기 위해서는 포디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포스트 포디즘에 대한 개념적 불확실성 못지 않게 포디즘의 개념정의 역시 명확하지 못하다. 포디즘이라는 용어가 포함하는 주요 내용(major sense)은 다음과 같다(Sayer and Walker, 1992, p. 194).

① 대량생산을 위해 조립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노동과정

② 자동차나 철강처럼 생산규모가 크고 여타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

③ 수직적으로 통합된 파견적 대기업이나 공장

④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이러한 포디즘의 정의/특성은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이행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동자의 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다. 그 한 예로 영국의 경우 컨베이어벨트 생산라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영국의 전체 근로자 2,000만명 중 70만명(3.4%)에 불과하다(Littler, 1985). 이러한 조사보고가 사실이라면 유연생산방식으로의 변화가 사회전체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조립생산이 영국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영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겨우 3.4%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자들에 따라 토요타 공장의 생산방식을 두고 포드주의적 또는 포스트 포드주의적으로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드주의에서 유연적 축적체제로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대 산업사회가 유연생산체제를 향해 점진적인 이행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Schoenberger(1986)는 현상태에서 달성된 유연화 정도보다는 변화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포드주의적 생산체제의 개념이 적용되는 산업의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포디즘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은 자동차나 텔레비전 같이 복잡하고 표준화된 제품(complex and standardized products)을 생산하는 산업에 국한된다. 단순한 대량 조립과정을 갖는 불연생산은 포디즘적 생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Sayer and Walker, 1992).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소위 유연생산과 대량생산이 양자택일적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성공이 완성차생산부문과 부품생산부문의 조화로 인한 발전을 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과연 포디즘은 붕괴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유연화론자들은 대량소비시장의 붕괴가 대량생산체제를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ayer and Walker(1992)는 소위 포드주의 붕괴의 실제적인 원인은 내재된 노동과정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고 보다는 기존의 상품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새로운 상품시장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데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상품과 비경쟁관계에 있는 전혀 새로운 제품이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을 통해 생산된다 하여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넷째, 포스트 포디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포디즘과 포스트 포디즘의 구분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포디즘의 근원은 1913년 포드가 미국의 평등주의 사상에 근거한 획일적인 대규모시장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한 데서 비롯된다. 포드자동차는 이러한 새로운 생산시스템의 도입이 결과한 급속한 생산성의 증대로 1921년에는 미국시장의 55%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초반 이후 대체수요가 신규수요를 앞서게 되고 소비시장이 보다 다양해지자 GM은 소득수준과 사용목적에 따라 모델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GM은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고, 다목적 기계설비를 개발하고, 외부기업으로부터의 부품조달비중을 높임으로써 제품생산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1927년에는 포드를 앞서

### 柔軟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

게 되었다(Tolliday and Zeitlin, 1986).

GM의 이러한 변신을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이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유연적 전문화의 내용과 너무도 흡사하다.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연성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1920년대 중반의 유연화는 1980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경직적인 대량생산 방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유연적 전문화 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연화의 의미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시대와 장소 및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데 있다.

### 3) 소비패턴의 다양화와 시장의 분화

柔軟化論의 주된 주장 중의 하나는 소비자의 소비취향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량소비시장이 붕괴되고 생산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niche market 전략)로 이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품의 다양화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제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적인 변화없이 기존제품의 모형을 약간씩 변형한 것이다. 그동안 유연적 전문화 논의에서는 이 두가지 유형의 다양화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모델만을 변경한 것을 다양화의 추구로 인식해 온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이 두가지 유형의 다양화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상이하다. 예로서 흑색 텔레비전의 모델을 다양화하는 것은 산업전체로 보아 제로섬게임(zero-sum game)에 불과한 것이지만 전혀 새로운 칼라텔레비전을 생산해 내는 것은 엄청난 신규수요의 확대를 가져온다. 사실 제품생산의 다양화전략을 가장 필요로 하는 기업조직은 소규모 기업이 아니라 독과점적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이다. 이는 수많은 소기업들이 각각의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 때문이다. 소비취향의 다양화와 다품종소량생산을 위한 소기업의 유연생산체제의 이행은 논리적으로 과장된 면이 많다.

또 다른 의문사항은 제품의 종류가 계속적으

로 많아지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價格이나 質보다 우선하는가 하는 점이다(Schonberger, 1987). 저렴한 가격과 좋은 질 그리고 높은 사용가치는 아직도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며 대량생산의 배후 추진력이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제품의 다양화와 유연생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대량생산이나 다품종소량생산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품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제품의 다양화전략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자본주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더구나 이 전략은 경쟁에 있어서 공격적이기 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의 것이다(Sayer and Walker, 1992).

유연화론자들은 niche market 전략을 강조하면서도 신상품의 생산이나 그의 시장개척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은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품이 곧바로 생산되어지거나 시장에 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수중에 들어가기까지는 원재료와 부품의 공급자 그리고 도소매업자의 조직적인 협력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규로 자동차사업에 뛰어들든 삼성그룹이 국내의 부품공급업체와 기술을 제공해 줄 외국의 다국적기업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대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제품)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기존의 상품제조를 하청업체에 이관하고 있다. 따라서 소기업이 이러한 niche market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기업이 대기업의 시장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게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Niche market의 대부분은 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품종소량생산체제가 나타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유연화론자들은 국제경제환경의 급변 즉, 국제화의 급진전을 들고 있다. 여기에

서 제기되는 의문점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제품의 다양화 보다는 생산성향상이라는 점이다. 대량 생산방식이 다품종소량생산방식에 비해 단위당 생산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생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온 것이 그 증거이다. 사실 제품의 다양화 문제는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수출입이 완전히 자유화 된다면 지나칠 정도로 다양한 상품이 수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유연적 전문화)의 등장 원인을 경제의 국제화에서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Sayer and Walker, 1992).

### 3. 다양한 종류의 유연성

유연적 전문화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유연성의 내용은 지극히 관념적이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여러 항목의 다양성 중에서 몇가지가 유연해야 유연적 전문화 업체로 구분될 수 있을지 그 기준이 없다. 자주 언급되는 유연성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Sayer and Walker, p. 199).

① 생산량 조절의 유연성(Piore and Sabel, 1984)

② 제품 및 생산라인 변경의 유연성(Storper and Scott, 1988)

③ 노동력 수급의 유연성(Atkinson, 1984; OECD, 1986; Boyer, 1988; Standing, 1991)

④ 유연적 노동실행(직무범위 및 직무순환의 확대)(Atkinson, 1984)

⑤ 유연적 기계설비(Kaplinsky, 1984)

⑥ 구조조정의 유연화(Piore and Sabel, 1984; Saxenian, 1988)

⑦ 유연적 생산조직(전문 생산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Beccatini, 1978; Scott, 1988; Storper and Christopherson, 1988; Sabel, 1989)

유연성의 증대와 관련하여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생산활동의 유연성이 증대되는 과정(즉,

특정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행/변화할 때)에서 생산성의 감소가 지극히 적어야 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유연적 기계장치, 생산조직의 유연화, 그리고 노동과정의 유연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유연적 기계장치

일군의 유연화론자들은 제품생산에 극소전자기술이 응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종류의 생산조직 및 노동조직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영희(1990, p. 53)는 유연생산체제를 “일반적으로 자동창고, 자동반송기, 수치제어기계, 생산라인 관리 컴퓨터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동가공라인을 지칭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기술의 힘을 너무 과장한 느낌이 든다. 아무리 유연한 기계일지라도 예상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인간의 노동에 비해 유지한 수준에 불과하다(Riley, 1985). 塗裝用 로봇트는 반도체 칩을 자판에 찍지 못하고, 물건 운반용 로봇트는 강철을 용접하지 못한다. 각각의 작업은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로봇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일본의 제조업자들은 로봇트를 특수 목적용 기계(dedicated machinery)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Schonberger(1987)의 주장에 따르면 유연제조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연생산체제가 소기업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소기업은 이러한 기술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이은진(1990)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동화설비율이 지극히 낮다.

제조업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유연성이란, 하나의 제조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상이한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생산공정 및 노동조직의 여건변화에 효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무형적 능력을 말한다. 사실 단순한 기계적 자동화는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서도 이미 상당 수준에 달했는데 컨베이어벨트 생산방식이 그 예

## 柔軟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

이다(이상석, 1992). 중요한 것은 자동화 그 자체가 아니라 전 생산공정에 걸친 효율적인 생산 조직에 있다. 이영희(1990)는 일본의 자동차공업이 생산성과 품질 면에서 구미선진국에 대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자동화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보다는 JIT시스템과 같은 독창적인 생산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은진(1990, p. 110)에 의하면 ‘자동화’와 ‘기계화’는 의미를 달리하는데 “자동화는 노동자들의 육체노동을 제거시키고 감독이나 기계에 대한 감시나 통제 등의 형태로 일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기계화는 도구나 기계를 작업자의 능숙성에 의하지 않고 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기계화나 자동화는 유연적 전문화로의 이행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을지라도 유연적 전문화를 특징짓는 결정적인 핵심요소는 아닌 것 같다. 유연적 생산체제에서 匠人的 숙련 기술자가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유연적 전문화 논의와 관련한 ‘유연성의 내용’은 자동화나 기계화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 2) 생산조직간의 유연화

유연적 전문화론자들이 의미하는 유연성의 대부분은 ‘전문화’된 기업 또는 運營單位間的 ‘유연적’인 상호협조체제의 형성이다. 그들은 유연성의 가치를 공간상에 집적하여 입지하는 개별 기업간의 네트워크에 집중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구성된 생산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수직적으로 분화된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현상은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경제(시장)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지구’가 이러한 기업네트워크의 전형적인 예이다.

유연적 전문화에서 의미하는 생산활동의 지리적 집적은 전문화된 소기업들의 기능적 상호보완의 필요성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소기업들의 集積地域에 비해 수적으로 거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종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집적이라 할 수 있다. 대단히 많은 연구자가 종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집적지역을 산업지구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Marshall(1920)에 의해 보고된 19세기 후반의 고전적 의미의 산업지구는 제외하더라도 하청업체들의 지리적 집적현상은 유연적 전문화의 논의가 시작되기 수십년 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의 성공은 일본 특유의 피라미드식 생산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시장기구’(보이지 않는 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보이는 손’(기업조직 또는 생산조직)의 역할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산업조직을 분석한 Dore(1986)의 ‘유연적 경직성’(flexible rigidities)이란 표현만큼 정통 경제이론이나 포스트 포디즘 논쟁을 난처하게 만드는 용어도 없을 것이다. 유연화론에 의하면 일본경제는 의무적인 거래관계, 종신고용, 서열에 근거한 임금체계 등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현재 매우 난처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Sayer and Walker, 1992). 그러나 일본 경제는 아직 무기력하거나 경직적이지 않고 구조변화나 기술혁신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산업조직이나, 하청, 그리고 노동시장에 있어서 ‘구조화된 유연성’(structured flexibility)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는 한국의 경우 계층적이고 불평등 종속관계가 일반적이다(Lee, 1992). 모기업은 1차 계열화 협력업체에 대부분의 하청 주문을 집중하고, 이들 1차 하청업체들은 2차·3차 하청조직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중층적 하청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간의 거래는 장기적이고 가격의 결정은 시장기구를 통하기 보다는 비가격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기업간의 거래관계도 중소기업간의 기능적 보완을 위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중소기업과 모기업인 대기업과의 거래가 거의 절대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연적 전문화론자들은 독립적인 기업간의 거래는 유연적인 것으로, 종속성이 강한 하청거래는 경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재고의 필요가

많다.

장기간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관계(계열)하청 (relational subcontracting)의 형태는 제품디자인이나 투자조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力動的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로서 텔레비전 기능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기업을 통해 사시를 생산하는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투자계획과 생산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열하청조직의 형성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점(규격의 표준화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은 자동차의 신제품 개발에 4년이 소요되는 반면 미국은 5년에서 7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예는 반도체 제조업자와 생산장비 제조업자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하여 미국이 일본에 비해 반도체의 설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앞서면서도 대량생산에서는 뒤지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Sayer and Walker, 1992). 시장의 신호(가격기구)에 의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가 경직적이고 조직적인 거래관계에 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 3) 노동과정의 유연화

새로운 '기술경제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의 자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노동과정 및 노동시장의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노동력의 유연성 증대는 크게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과 '수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Atkinson, 1987). 기능적 유연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 숙련 노동자의 고용증대와 직무순환 및 직무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적 유연성은 노동력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상용직 핵심노동자들의 유연적 과업실행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반면, 수적 유연성은 경기변동과 투자계획에 따라 종업원의 수를 마음대로(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업능력, 즉 노동시장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유

연성을 의미한다. 수적인 유연성의 대상이 되는 주변적인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주로 외국인, 여성, 임시직 노동자)로 구성된다(조명래 등, 1991).

유연화론에서 의미하는 노동실행의 혁신은 원래 '인간중심적 기술체계'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적인 유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본래의 의미가 변하여 수적인 유연화가 유연화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지고 있기도 하다. 수적인 유연화전략은 유연적 생산체제의 논의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노동실행의 유연화는 기능적 유연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실행의 기능적 유연화는 職務間 境界가 제거되고(분업의 최소화), 작업현장에서의 자율권이 확대되며, 포디즘하에서 분리되었던 '구상'과 '실행'이 재통합됨을 뜻한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의 '재전문화'(reprofessionalisation)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상품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려는 기업의 시장전략에 기인한다(이영희, 1992). 노동실행의 유연성 증대란 사실 기능적 유연성을 가진 중심부 노동자들(core workers)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배제된 대부분의 주변노동자들은 유연화 논의에서 말해지는 유토피아적 노동과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Bagnasco and Trigilia의 연구에 의하면 Third Italy의 파업률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Sabel, 1989, p. 25).

이제까지의 글에서는 주로 유연적 전문화의 개념정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가지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연적 전문화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장되어 있으며, 개념정의가 관념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구체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개념의 적용이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디즘이란 용어가 20세기 초반에 기존의 생산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무리가 없었다면 그 이전의 방식은 당연히 유연적 생산체제였을 것이다. 현재의 생산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연적 관행들



## 柔軟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

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다양한 관행들의 '재발견'이나 '공존'으로 이해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리라 생각된다(이상석, 1992).

### 4. 유연적 전문화와 산업공간의 재구조화

생산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리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유연적 전문화로의 이행이 공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이다. 새로운 생산체제에서 기업들은 공간적 재집중을 통해 신산업공간(new industrial space)을 어느 정도 형성했으며 또 형성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앞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과연 유연적 생산체제가 포드주의 생산체제와 완전히 단절된 것인가 하는 것과 유연화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는 사회현상의 근본적이고도 광범위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집을 지어 이사하는 사람이 새집이 완성되기 전에는 현재 거주하는 헌집을 허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미국의 산업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초기 단계에 미국 북동부지역에 집적하여 거대한 제조업지대를 형성하였다.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방식을 채택했던 기존의 핵심지역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급격히 쇠퇴한 반면 기존의 산업중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생산과 고용에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였다(Storper and Scott, 1989). 고태경(1992)은 한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포스트 포드주의 혹은 유연적 축적체제로 변화하면서 과거의 포드주의에 입각하였던 제조업 중심지로부터 非제조업지대로, 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와 非대도시권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NICs에서부터 準NICs로 제조업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량생산방식에 익숙해 있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존의 산업 중심지에서 유연적 전문화체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들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의 산업입지 변화는 그 상당부분이 과정적 대기업의 分工場經濟 戰略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유연적 전문화의 필요성에 의해 입지를 이동한 것이라기 보다는 임금인상과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집적지역을 떠나 대량생산방식에의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지역에서 포드주의적 생산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산업화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일천한 지역에서 유연적 전문화에 필요한 숙련노동력을 구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지역에서 보다 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경험이 없는 지역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은 대부분이 미숙련 단순 노동력이다.

#### 1) 산업지구

유연적 전문화의 가장 가시화된 공간적 특징은 생산의 외부화 즉, 기업간 기능적 분업의 확대와 그에 따른 기업간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특정 지역에 전문화된 소기업이 재집적하는 '산업지구화'의 경향이다(Storper and Scott, 1989). 원래 산업지구라는 용어는 1890년 Alfred Marshall(1920)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는 '산업지구의 경제'(the economies of industrial districts)를 "특정지역에 유사한 특성을 갖는 많은 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신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인 그는 산업생산의 지역적 특성(regional character)에 매료되었으며 Sheffield와 South-East Lancashire를 산업지구라고 규정하고 그 곳에서의 생산의 모체는 기업(firm)이 아니라 지역(area)이라고 강조하였다. 현대판 Marshall의 '산업지구'의 존재가 Brusco(1982)를 비롯한 일군의 이탈리아 학자들에 의한 연구에서 보고된 이후 산업지구는 이제 포스트 포드즘의 주요 산업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소기업이 집적을 이룬 산업지구는 이탈리아의 Emilia Romagna, Toscana, the Marche, the Abruzzi, 그리고 the Veneto 지역 등에서 보고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지구 형성의 직접적인 동기는 유연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들 지역의 대기업들이 1970년대 초반의 심각한 노동쟁의를 경험한 후에 하청과 같은 생산의 외부화(putting-out system)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기인한다(Amin and Robins, 1990). 산업지구에 대한 연구보고는 이탈리아 이외에도 Silicon Valley, Route 128, 영국의 Cambridge-Reading-Bristol Corridor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소위 이들 산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뜨게질 옷에서부터 반도체생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Martin, 1990).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산업지구들이 유연적 전문화에서 의미하는 '산업지구'로 규정될 수 있을런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기업의 유연성은 생산활동의 전문화가 심화될 때 가능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勞動分化(labor articulation)를 요구하게 된다. 산업은 독립된 생산단위의 단순한 합이 아니고 개별기업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일군의 조직인 것이다(Sabel et al., 1987). 유연생산체제하에서 기업이 지리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지역(place)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Storper and Scott, 1989). 포디즘에서 유연생산체제로의 이행은 기업조직의 기능적 원리가 새로운 지역원리(territorial logic)에 길을 열어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Amin and Robins, 1990). 산업지구는 고정된 실체(fixed entities)라기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외적 힘의 변화에 반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체이다.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적으로 통합되고 자족적인 산업지구"의 발전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디즘하의 분공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연적 축적체제의 '산업지구' 역시 다국적기업의 영향권 밖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산업지구라는 용어는 Third Italy의 연구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보다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경제성장 정도의 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단순한

소기업의 집적지역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로서 Sforzi(1989)는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이탈리아에 60여개의 산업지구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산업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여개 지구의 업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기 보다는 섬유, 의복, 신발, 가죽제품, 그리고 가구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소도시의 주변 지역에 위치하는데 그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의 이용 및 농촌지역으로부터 파트타임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탈리아 은행(Bank of Italy)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소위 산업지구의 소기업은 혁신적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훨씬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소기업은 실제로 있어서 대기업(모기업)을 핵으로 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기업에 의해 흡수·합병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Sforzi가 말한 산업지구의 거의 대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산업지구가 아니라 단순히 하청업체들이 모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집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산업지구의 논의에 있어서 기업의 입지패턴의 변화 못지않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구시대와 신시대의 축적체제를 근본적으로 구분짓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유연성이란 용어는 현재 '새로운 것'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에 산업지구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현대 산업사회의 입지패턴이라고 주장하려면 과거 포디즘하의 소규모 기업의 집적에 의한 성장지역(growth areas)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명백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Amin and Robins(1990)에 의하면 과거 자동차산업의 심장부였던 Detroit와 Turin에서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노동분업이 이루어져 많은 부품이 지역에 기반을 둔 생산자들에 의해 공급되었으며, 이들 부품생산업체들간에는 장기간에 걸친 협력체제가 존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산업집적지역이 강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산업공간의 형성이 반드시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 柔軟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

축적체제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2) 유연화 논쟁과 한국의 산업입지

축적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것은 한국의 경우 유연적 전문화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 어느 연구논문도 보아도 포스트 포디즘이 포디즘을 대신하여 완전히 현대 산업사회에 정착되었다는 주장은 없다. 다만 유연적 생산체제와 관련한 몇몇 사례를 들고(그것도 부정확하게) 포스트 포디즘으로 이행 중에 있다는 주장이 전부이다. 한국의 생산양식(또는 축적체제)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최병두(1991, p.132)는 “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 80년대 기계제 공업의 포드주의 단계 그리고 90년대의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탈포드주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명래 등(1991, p.250)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축적체제를 “유연적 기술 패러다임이 기초가 되는 후기 주변부 포드주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창균(1991, p.62)은 “테일러주의적, 포드주의적 노동력 이용체제 내에서 일본적 노동력 이용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고태경(1992, pp.240-241)은 “후기포드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유연성 생산체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고 주장하고 1992년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체제를 노동집약적 산업체제, 대량생산체제의 포드주의, 그리고 첨단산업중심의 부분적 후기포드주의(유연적 생산체제)의 복합체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한국의 산업공간의 변화를 유연적 전문화체제로 일반화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태경(1992, p.241)은 “노동집약적 산업체제와 영세 중소기업은 점차로 서남권에,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는 동남권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유연적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첨단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축적체제(또는 생산 방식과 노동유형)를 달리한다는 그

녀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이를 유연적 전문화 논의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그녀도 주장하듯이 한국의 공간경제는 그 큰 골격이 재벌기업의 분공장조직에 의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고태경, 1992). 재벌기업이 주도적인 국토공간의 조직자(space-organizer)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현단계에서 하나의 기업조직이 運營單位(operating units)에 따라 각기 다른 생산양식(또는 노동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각기 다른 공간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이행이 실제로 진행중에 있다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유연적 생산양식은 기존의 산업중심지인 수도권이나 동남권에서 보다 산업화의 경험이 일천한 서남권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노동유형을 필요로 하는 생산체제는 포드주의적 분공장경제의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인 것이다.

## 5. 맺 음 말

현대 산업사회가 유연적 생산체제를 향해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사회과학 제분야에서 풍미하고 있다. 이 글은 유연적 전문화의 개념, 유연화의 진행정도, 산업지구, 유연화와 국제화의 관계, 그리고 유연적 전문화 개념의 한국 산업공간에의 적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에 따라 유연적 전문화의 개념정의가 천차만별인 관계로 유연화론은 현재 거의 무정부상태에 빠져있으며, 논의의 효용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유연화’의 적용대상 및 범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확대되어 원래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유연적 전문화라는 용어는 하청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이 두 용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용어의 개념 자체가 지극히 관념적이고 상대적인 것도 이의 현실 사회

에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어제의 유연화는 오늘의 경직성이 되어버리기 일췌이다.

둘째, 유연생산체제(포스트 포드즘)로의 진행 정도는 자본주의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직 매우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산업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과장되는 이유는 많은 연구자들이 논리전개의 편의를 이유로 二分論의 인 설명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직성 대 유연성, 소품종대량생산 대 다품종소량생산, 탈숙련화 대 숙련화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출발점과 종착지만 있고 그 사이에 길이 없는 것이다. 또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과 관련하여 조립라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실제에 있어서 극소수이기 때문에 생산체제의 변화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보다 지극히 작다.

셋째, 유연적 전문화론은 소기업과 생산공간으로서의 지역(area)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소규모 기업이 특정 지역에 집적하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는 유연화론자들이 의미하는 '산업지구'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소기업의 지리적 집적은 한국의 경우 소규모 하청기업이 주요 모기업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 집중한 것이지 유연화론에서 말하는 독립적이고 기술집약적이며 전문화된 소기업들의 상호간의 기능보완을 위한 지리적 집적은 아닌 것이다. 한국의 하청기업은 그 대부분이 아직 노동집약적이고 기술수준이 낮으며 그들의 주요 모기업에 크게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首都圈을 중심으로 유연적 전문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취약하다.

넷째, 유연적 전문화의 대상이 되는 기업조직은 주로 소규모 기업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제품의 다양화나 기술의 전문화가 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쪽은 소기업이 아니라 독과점적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화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유연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다국적기업은 지속적

로 그들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사실 제품의 다양화 문제는 국제화가 더욱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다양화가 아니라 제품의 질과 가격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적 전문화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유연적 전문화의 의미와 적용대상 및 범위를 학자들 간에 통일하는 것이다.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네오테일러주의, 네오포드주의, 포스트포드주의, 유연적 전문화, 그리고 주변부 포스트 포드주의 등과 같은 관념적인 용어를 제품의 생산방식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공장 자동화, 컴퓨터 설계, 생산의 외부화, 파트타임 노동력의 이용, 제품의 다양화, 직무의 재조직 등 보다 직접적이고 세분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다. 유연적 전문화 논의는 현재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投稿 1993년 6월 31일)

## 註

- 1) 유연적 전문화는 포스트 포드즘 축적체제의 한 분파에 해당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 2) '유연적 전문화' 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Piore and Sabel(1984)로 그들은 현대사회가 특정 기술경제 패러다임(포드즘)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종류의 패러다임(유연적 전문화)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3) 유연적 생산체제로의 이행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전문화시켜 기업간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높이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소기업의 지리적 집적을 초래하여 '산업지구'를 형성하도록 한다.
- 4) 이 글에서 언급된 Sabel(1982)의 논의는 Murray(1987)의 논문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 5) 'Third Italy'는 Emilia-Romagna, the Marches, Tuscany, Umbria를 포함하는 이탈리아 중부와 북동부 지역으로 엔지니어링, 섬유, 그리고 의류산

柔軟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

업에 종사하는 中·小·匠人 企業이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강력한 기반으로 'Red Belt'라고도 불리우며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 6) Sabel(1989)은 유연적 전문화의 적용범위를 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다룬 내용은 거의 전부가 소기업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McNee(1986)가 '기업의 지리학' (The Geography of Enterprise)의 대상을 모든 종류의 기업조직과 산업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만을 다루어 '거대기업의 지리학' (The Geography of Very Large Firms)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文 獻

고태경, 1992, "1980년대 韓國資本主義의 발달과 空間構造의 變化", 地理學, 27(3), 232-242.

李相石, 1992, 韓國 自動車産業의 生産組織 및 技術과 立地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地理學), 全南大學校.

이영희, 1990, "극소전자기술혁명과 노동의 변화", 경제와 사회, 8, 43-70.

이영희, 1992, "포스트 포디즘론의 비판적 검토: 축적구조와 노동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4, 65-90.

이은진, 1990, "자동화의 현단계", 경제와 사회, 8, 107-122.

조영래·김왕배·강현수, 1991, "후기 주변부 포드주의와 지역 재구조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 한울, 서울, 213-251.

채창균, 1991, "일본적 노동력이용체제의 성격과 한국에의 적용", 동향과 전망, 14, 46-71.

최병두, 1991,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서울.

Amin, A. and Robins, K., 1990, The re-emergence of regional economics? The mythical geography of flexible accumul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8(1), 7-34.

Brusco, S., 1982, The Emilian model: productive

decentral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6(2), 167-184.

Dore, R., 1986, *Flexible Rigidities: Industrial Policy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Japanese Economy, 1970~1980*,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and California.

Lee, D.A., 1992, *Chaebols, Government Policies and Their Impact on the Spatial Dynamics of Industry and Labour: The Case of Samsung Group*, Ph. D thesis (Human Geograph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Little, C., 1985, Taylorism, Fordism and job design, in D. Knights, H. Willmott and D. Collinson (eds.), *Job Redesign*, Gower, Aldershot, 1-9.

Marshall, A., 1920, *Principles of Economics*, eighth edition, Macmillan, London.

Martin, R., 1990, Flexible futures and post-Fordist places: comments on pathways to industri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1990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22(10), 1276-1280.

McNee, B., 1986, One perspective on the enterprise perspective, in M. Taylor and N. Thrift (eds.), *Multinationals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Economy: The Geography of Multinationals*, Volume 2, Croom Helm, London, Sydney, Dover, New Hampshire, 344-359.

Murray, F., 1987, Flexible specialization in the Third Italy, *Capital & Class*, (33), 84-95.

Piore, M. and Sabel, C.,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Basic Books, New York.

Rasmussen, J., Schmitz, H. and Dijk, M.P., 1992, Introduction: exploring a new approach to small-scale industry, *IDS Bulletin (Flexible Specialization: A New View on Small Industry?)*, 23(2), 2-7.

Riley, J., 1985, Factories automate before their

- time, *Computer Weekly*, May 23.
- Sabel, C.F., 1982, *Work and Politics: The Division of Labour in Indus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abel, C.F., 1989, Flexible specialization and the re-emergence of regional economics, in P. Hirst and J. Zeitlin (eds.), *Reversing Industrial Decline?*, St. Martin's Press, New York, 17-90.
- Sabel, C.F., Herrigel, G., Kazis, R. and Deeg, R., 1987, How to keep mature industries innovative, *Technology Review*, 90(3), 27-35.
- Sayer, A. and Walker, R., 1992, *The New Social Economy: Reworking the Division of Labor*, Blackwell, Cambridge and Massachusetts.
- Schmitz, H., 1990, Small firms and flexible spec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Labour and Society*, 15(3), 257-285.
- Schoenberger, E., 1986, Competition, competitive strategy, and industrial change: the case of electronic components, *Economic Geography*, 62, 321-333.
- Schonberger, R.J., 1987, Frugal manufacturing, *Harvard Business Review*, 87(5), 95-100.
- Sforzi, F., 1989, The geography of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in E. Goodman, J. Bamford and P. Saynor(eds.), *Small Firms and Industrial Districts in Italy*, Routledge, 153-173.
- Tolliday, S. and Zeitlin, J., 1986, Introduction: between Fordism and flexibility, in S. Tolliday and J. Zeitlin(eds.), *The Automobile Industry and Its Workers*, Polity Press, Cambridge, 1-25.

## Flexible Specialization: A New Paradigm for Modern Industrial Society?

Deog-An Lee\*

### Summary

There is much speculation that modern capitalist society is undergoing fundamental and qualitative change towards flexible speci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is hypothesis. This paper focusses on: the idea of flexible specializ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transition; industrial district;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new production system for Korean industrial space. Main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ll different groups of researchers

apply the idea of flexible specialization according to their own specifications, the current debate on this topic is not much fruitful. Not surprisingly, the concept of flexible specialization has overlapped with subcontracting. This integration of subcontracting into flexible specialization systems, however, is inappropriate because the two concepts have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The other cause of this controversy is its inherent weakness, conceptual ambiguity. Thus, today's flexibility becomes tomorrow's rigidity.

Secondly, transition towards flexible specialization has only been partially achieved even in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The application

---

\* Part-time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Geograph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柔軟的 專門化(Flexible Specialization)

of dualistic explanatory framework, such as rigidity versus flexibility, mass production versus small-lot multi-product production, and de-skilling versus re-skilling, has resulted in great exaggeration of the transformation, from Fordism to post-Fordism. There is no intermediary part between two places. Considering that the workers allocated to the Fordist mass production assembly line are not as large as one might imagine, the shift from mass to flexible production has only limited implications for the transformation of capitalist economy.

Thirdly, 'industrial district' controversy has contributed to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mall firms and areas as production space. The agglomeration of small firms in specific areas is common in Korea, but i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industrial district based on flexible specialization. The Korean phenomenon stems from close interactions with its major parent firm rather than interactions between flexible, specialized, autonomous and technology-intensive small firms. Most Korean subcontractors are still low-skilled, labour-intensive, and heavily dependent on their major parent firms. Thus, the assertion tha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dopts flexible specialization has no base.

Fourthly, the main concern of flexible speciali-

zation is small firms. However, the corporate organization that needs product diversification and technological specialization is oligopolistic large corporations typifi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t is because of this that most of these organizations are adopting Fordist mass production methods. The problem of product diversification will be resolved naturally if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progresses further. What is more important for business success is the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of firms rather than product diversification.

Lastly, in order to dispel further misunderstanding on this issue, it is imperative that the conceptual ambiguity is resolved most urgently. This study recommends adoption of more specified and direct terminology (such as, factory automation, computer design, out-sourcing, the exploitation of part-time labor, job redesign) rather than that of ideological ones (such as, Taylorism, Fordism, neo-Taylorism, neo-Fordism, post-Fordism, flexible specialization, peripheral post-Fordism). As the debates on this topic just started, we still have long way to go until consensus is reached.

**Key Words:** flexible specialization, industrial district, post-Fordism, subcontracting